제 40대 학생자치회 임원 지원서

인적 사항

학번, 이름: (20511윤예지)

전화번호: (010-3028-0589)

지원 부서 - 각 부서당 2학년(부장) 2명, 1학년(차장) 2명씩 뽑습니다

부서 종류

학예부, 체육부, 홍보부, 평등/상담부, 총무부, 환경안전부, ICT부

지원 부서: (학예부)

(왼쪽의 나열된 부서 중에서만 선택하세요)

자기 소개 및 부서 비전 제시 (글자 수 최소/최대 제한 없음)

1) 간단한 자기 소개 및 이 부서에 지원하게 된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 예, 지혜 지 라는 이름을 가진 윤예지 입니다! 제가 왜 제 이름 한자를 처음에 소개했을까요? 제 이름은 미리 알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이름 뜻을 인생의모토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어떤 애로사항, 불편한 점을 먼저 캐치하여 수정하고 더 좋게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잘합니다. 저의 장점,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보자면 슈퍼 J라는점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어떻게든 수행합니다. (학생회에 꼭 필요한 인재인것 같습니다 ㅎㅎ) 또 저는 열정맨입니다. 어떤 일이든 열정 하나는 그 누구보다 활활 타오릅니다. 학예부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1,2학년을 겪어오면서 학습 pdf 제공이라는 일이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주도해서 완벽하고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열정적으로 미루지 않고 잘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과서 pdf 제공외에도 수특 제공 등(2번에서 자세한 설명) 항상 학교에서 학습에 관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왔고, 어떤 일을할지 많이 상상해왔기 때문에 학예부 부장으로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 할 자신이 넘쳐흘렀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의 면에서 많은 풍파를 맞아오면 단단해진 저이기에 학예부에서 뼈를 묻어 유익한 활동을 많이 하여 광희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학예부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부서 부장/차장이 된다면 해당 부서를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비전, 계획 제시

제가 학예부 부장이 된다면 슈퍼 J의 장점을 5억% 반영하여 학예부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학예부의 부장님과 차장님과 상의를 하여 1년 동안 학예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서면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 후 그 계획들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례차례 진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아니, 진행할 것입니다. 부서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하겠다고 계획한 점을 진실 되게 지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학생회를 하였지만 각 부서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다릅니다. 어떤 풍파가 다칠지라도 계획한 일은 실천하는 모습으로 부서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 것입니다.

제가 학예부 부장이 된다면 학예부의 모토와 비전은 '성실, 책임, 진실, 실천'으로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성실하게, 학예부로서의 책임을 지니고 계획한 일을 진실되게 실천할 것입니다.

제가 학생회 부장이 된다면 먼저 모집 공고에 적혀있었던 학습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 계획을 설명해보자면 교과서 pdf를 구하여 학년별로 파일을 만들어 정리할 것입니다.(zip파일로 제공하면 편할 것이라 생각) 또, 수능특강 pdf를 제공할 것입니다. EBS에서는 매 해 수능특강 pdf를 제공합니다. 학교에서 수능, 모의고사를 위해 방과후 수업도 진행하고 방학특별수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능특강 pdf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더욱이 학습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BS에서 원래 제공하는 것이기에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며, 학생들의 사기를 더욱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후배간 학교생활(공부와 관련된) OnA 에스크를 운영할 것입니다.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광희고등학교 에스크가 있는 것처럼, 공부와 관련된 에스크를 운영하여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학교공부에 관해 편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저의 경험과 주변 친구들의 경험담에서 얻게 된 아이디어인데요, 학교 시험과 공부에 대해 잘 모르는, 또한 아는 선배가 없는 학생들은 학교의 시험이나 공부에 관해 잘 알 방도가 없습니다. 저 또한 1학년과 2학년을 겪어오면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점이 많습니다.(생기부 채우는 방법, 나에게 맞춰 쓰는 방법 등) 물론 유튜브나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학교생활 꿀팁, 공부 꿀팁도 유익하지만 최전방에 있는 선후배간의 정보 공유가 있다면 더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교마다 시험문제의 특성이 있고 특히나 사립학교인 광희고는 선생님들마다의 시험 스타일이 더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입학하지 얼마 안 된 1학년의 경우 시험에 대한 불안함과 막막함이 클 것인데 이때 선배들이 운영하는 에스크가 있다면 시험에 대한 궁금증 및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에스크의 경우 답변을 여러 명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선배들이 여러 번의 시험을 겪으면서 이건 꼭 꾸준히 해야겠다고 느낀 것이 있으신가요?, 문이과가 나누어지면 과학수업, 사회수업은 이동수업으로 진행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동수업이 진행되나요?) 이쯤되면 에스크에 답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건데요, 질문의 예시로 들었던 문이과 수업방식의 관한 경우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니 그러한 질문은 학예부에서 답변을 하고 예시 중 '꾸준히 하면 좋겠다고 느낀 것' 같은 질문의 경우는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질문 공지를 한 후 방송부처럼 오픈채팅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계획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학교생활을 해오면서 학교의 공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선후배간의 티칭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으쌰으쌰한 분위기와,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부서에 지원하며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각오

학예부에 저만큼 열정과 잘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고자 계획한 것은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학예부의 부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로서 더욱 더더더더더더욱 모범적이고 바른 학교생활을 할 것이며, 학교의 임원으로서 하는 일을 절대로 귀찮거나 하기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의 일원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이고 책임감 있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광희고등학교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4) 그 외 자기 어필, 하고 싶은 말

저를 놓치신다면 정말 큰 실수 하시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에 뽑힐지 안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청서를 쓰는 과정과 학예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학예부에서 이 한 몸을 불살라일 할 수 있을지 1부터 100까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열정이라 하면 윤예지, 윤예지라하면 자고로 열정입니다. 열정과 책임으로 불타오르는 저를 꼭 뽑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요. 꼬옥.

* 해당 부서에 떨어지더라도 다른 부서에 재지원하겠습니까?

지원자가 부족한 부서만 가능하며 추후 개별 연락으로 공지해드립니다

*재지원 여부 (재지원)

제출: nether423@outlook.com (학생회장 주영욱)

기타 문의 사항: https://www.instagram.com/4kwanghee0/ (학생회 인스타)

https://open.kakao.com/o/sXtQecpe (학생회 오픈채팅)